

질병 오염에 노출이 심하다.

□ 취재/이유혁 기자

최 근 우리나라 육계업은 질병 등 사양관리의 누수 현상으로 일정한 체중에 도달하면 증체가 되지 않거나 폐사가 급증하여 낮은 생산성으로 국제경쟁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장 규모가 대형화 되어 자동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육계인들은 직접 농장에 들어가 과거 채래식 계사에서 보다 기계에만 의존하다 보니 관심이 낮아져 대형 사고나 환기 불량 등으로 출하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생산지수가 떨어져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어 이번 육계 출하 후 농가에서 기자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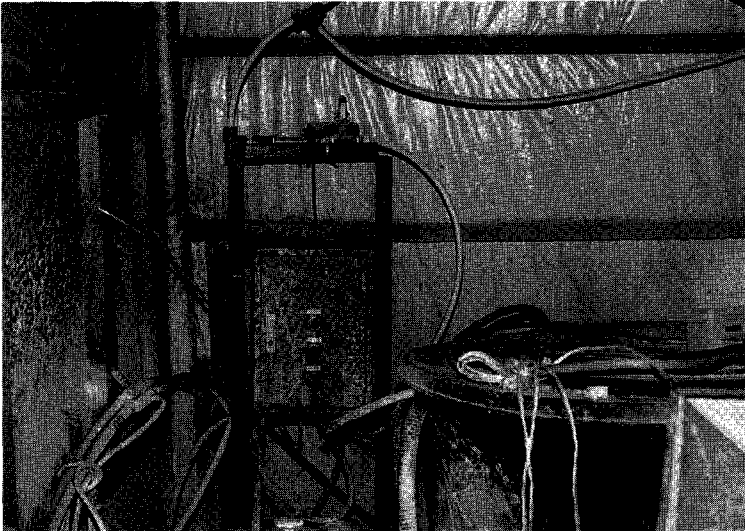
○ 입추전 계사 청소가 중요

육계는 평소 사육이 되기 때문에 입추시부터 출하할 때까지 깔짚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왕겨를 사용하는 농장일수

록 먼지 발생이 많아서 계사 벽면이나 철구조물, 급수·급이기, 환, 전기기구, 열풍기 등에 이 먼지가 틈틈이 쌓여 출하 후 청소가 제대로 안되면 자칫 질병원의 원인 제공자가



△ 전원 플러그에 심지어 계분이 묻어 부식이 되는 장면



△ 임의로 배전판에서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하는데서 누전이나 전압 강하로 과부하의 원인을 제공하여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

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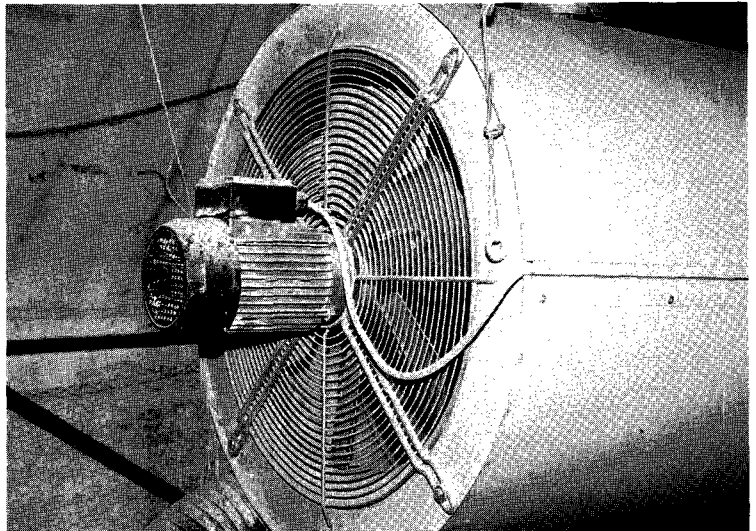
부화장에서 출발한 병아리는 이동 중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약해져서 계사가 오염되어 있다면 지속해서 질병감염이 쉽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반 농가에서는 계사 청소나 소독, 기자재 청소에 매우 소홀하여 초기 관리에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육계가 출하되면 바닥의 깔짚을 제거하기 위해 기자재 중 급이기는 상단부와 하단부를 분리하여 급이기가 계분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자동화된 농장들은 급이, 급수라인이 위로 올려지도록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급이판을 물로 대충 세척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급이기를 분리하고 연속 깔짚을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 가장 소홀히 다루는 환기 팬

면 일단 계분을 말끔히 제거하고 천정 부터 웬을 작동시키고 윈치커튼을 들어올려 먼지를 제거하면서 벽면까지 완벽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바닥을 다른 흙으로 채우거나 물로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청소를 한 후 수분이 증발하면 소독약제를 계사 전체에 뿌려주고 나서 훈증소독을 하면 효과가 매우 높아진다.

○ 기자재는 청소방법에 따라 분류

앞에서 언급했듯이 급이기의 상단부는 세밀한 먼지제거를 하고 분리된 바닥부분은 물로 세척을 하고 소독제에 담가



△ 열풍기의 과열 등으로 화재의 위험이 높으나 관리가 소홀하다.

햇빛에 말리면 된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물로 닦고는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

급수기는 물탱크부터 파이프라인, 니플까지 차있는 물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이물질을 없앤다.

○ 전기사용 기자재 일일이 점검

이번 취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전기 기구의 관리이다. 조명 기구로부터 콘센트, 핸, 열풍기에 이르기까지 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다고 보아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듯 싶다. 과거와는 달리 자동화 시설로 전기사용이 증가하였으나 농장에서의 전기에 관한 상식은 매우 낮았음을 볼

수 있다.

전기누전은 곧 바로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한 전기용량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전선을 몇십미터 이상까지 설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용량 등 새로 전선을 연결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동선이라 할지라도 7~8년이 경과하면 가급적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 본선에 연결한 소켓 연결부를 잘 관리하고 먼지가 쌓이거나 습기가

표1. 육계 출하 후 실시하고 있는 소독 프로그램

일 정	세 부 작 업 항 목	소 독 제
1~2	• 소독약(1,000배액)분무(먼지의 비상방지) • 기구 / 시설반출 • 깔짚, 계분처리	4급 암모늄제
3	• 계사내부 청소 및 수세(세제나 소독약 1,000~2,000배액) • 평당 4l 분무세척 • Rin 세척	4급 암모늄제
4	• 건조 • 육추기구 청소/소독/수세/건조/보수정비	요오드제, 염소제
5	• 원충소독(100배액)평당 4l	을소제
6	• 건조 • 깔짚준비, 일광소독	
7	• 분무소독(바닥 50배액, 천정/벽 500배액)	
8~9	• 건조 • 시설/기구 완전조립	요오드제, 염소제
10	• 훈증소독 • 포르말린용액 연막분무 100ml/평	포르말린
11~13	• 환기 및 입추사 완결 • 깔짚관리, 소독발판/신발준비	
14~16	• 건조 및 밀폐	
17	• 분무소독(500~1,000배액/2l/평)	4급 암모늄제
18~20	• 건조	
21	• 입추관리(급온/급수)	

차여 스파크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는가도 살펴야 한다.

다음은 열풍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겨울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이기 때문에 먼지제거와 전원연결구의 철저한 검사가 없으면 화기와 맞닿아 있어 늘 화재나 오작동으로 피해를 당하는 수가 많다.

여름철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료 탱크의 연료를 제거하고 버너 등에 녹이 슬지 않도록 정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눈에 잘 띄이지 않는 곳에 있는 환기팬의 관리

이다. 모터의 자연 방열판에 먼지가 쌓여 과열 위험이 많은가 하면, 흰 날개에 먼지가 잔뜩 쌓여 제거가 되지 않고 있어 화재와 질병발생의 이중 위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육계 농장에서 파이프나 목재 보온 덮개식 계사일수록 출하 후 계사 및 기자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음 병아리가 입추되었을 경우 제거되지 않은 먼지 때문에 항시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대개 인력난 때문에 기자재 청소는 어렵다고 가정하고 대충 걸만 닦아내는 식의 관리는

완전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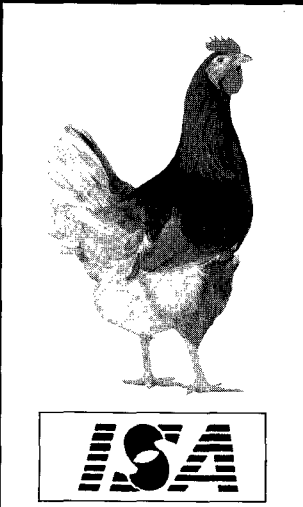
계사구조도 열악하여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기자재 관리까지 되지 못하면 사실상 육계의 생산성 향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육계업이 영세하여 당장 계사구조 등을 개선하여 외부인을 통제하고 출·입시 철저한 방역은 어렵다 하더라도 출하 후 계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기초 준비작업은 영세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양기태**



최고의 성적
최고의 경제성

동서중추농장



중추 전문업체인 동서축산이
신기부화장의 후원으로
철저한 육성관리와 방역으로
건강한 중추를 보급하겠습니다.

- 특란형 하이라인
- 이사브라운
- 위탁 사육
- 초생추 분양

사무실 : (0333)665-2148, 667-0772
농장 : (0417)582-4745
휴대폰 : 011-345-8148, 011-350-8239
호출기 : 012-849-8148, 012-343-2148